



...우리의 目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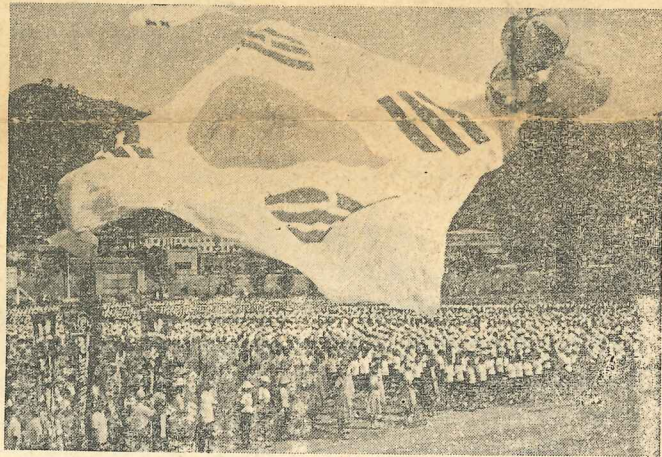
- 1 在日僑胞의 救靈
- 2 祖国統一의 實現
- 3 韓・日兩國의 和解

第22回 光復節을 마지하여

해방의빛을본지 벌써 이십여년의 성장이 지나갔다 그간 우리나라는 해방과독립을가져게되었으나 한편 국토의양단은 많은비극을 우리에게 남겨두었다 가족의분산 부부의생이별 동족살상의6.25동란등 말할수없는 눈물의고개였다 그러나 이비극을 초월하여 조국은 발전의 일로를 감행하여나왔다 그 자랑할수있으며 물론 양단된국가로서 기적적으로 발달한 서독(西獨)이나 패전한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발전이라기보다도 회복된것이 아닌가 하는생각도 들게된다 그러나 내나라에서 그런지수많은 악조건 밑에서 이만큼된것도 장하다고 자부하는바이다 이것은 독립의 은혜라고 하겠다 과거 제국주의의 치하에서 말 못하고 나라없는 비극은 언론의자유가 없을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민생 등 모든것이 노예상태에 처해있었다 이에비해 오늘날의 자유독립은 우리에게 두날개퍼고 날아다니는 독수리와같은 경쾌로운기분을준다 이자유독립 해방을 우리는 잘이용하여 만방에 빛나는 문화국가를 건설하여나가지 세월이 흘러가면 감격이식어저간다 오늘의우리민족은 해방이된후 너무나 많은비극에지쳐 해방의감격을 잊을뿐더러 때로는 원망조차하는수가 많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진 이자유독립을 원측으로하여 양단된국토를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할것이다 해방직후 우리는 하나의독립국가로 쉽게될줄로 믿었으나 세계정세는 그것을 허락지않았다 우리는이것을 타국에 원망하여왔다 이제는 원망만하고 있을때가아니다 국토의양단이 빛어낸 비극을 해결하기위하여는 우리의 절대적력노이필요한것이다 자기나라를 그누구에게호소하며 그누구의 힘을 빌릴것인가? 우리는 자주독립국가의 국민이다, 세계에 공헌할지언정 세계의침이 되어서는 않된다, 제국주의의 치하에서 벗어

난 우리는 절반의해방밖에 얻지못하였다 앞으로 온전한해방을 얻기위하여는 할일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민생 문제가 세계의어떠한 주의(主義)의 주창국가 보다더 앞서가야 할것이다 이것을 리상론이라고 할런지도 모르나 리상론 이라고 하여 자기할일을 하지않고 그누가 해주리라고 믿을수는없다 8.15해방이후 오늘까지 온갖 비극을이긴 우리민족은 이역사적인 일을 하고도남음이 있다고생각한다 고난에서단련받고 구속에서 자

상을 굽히지않고 피흘리면서 민족의정신을 지켜온우리는 백의(白衣)민족의 전열의정신을 또다시 기억하면서 이 광복의날에 우리는 어떠한 사상적인바람이 휘몰아쳐 올지라도 그사상을굽혀서는 않된다, 경제적인고난이 오고 봉건제국주의의 사상이나 무신론적인간을 노예로삼는 사상이나 어떤 심한 어둠이와도 모든것을 배격하고 자주독립을지키며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정신적인기반을 먼저 닦아나가야 할것이다.



● 教会 消息 ●

關西지방연합전도회가 지난7월25일부터 27일까지 兵庫縣城ノ崎온천에서 개최되었다 關西각처에서 뭉인 회원60여명은 민음의용기와 희망을얻었다 강사는 서울제일교회의 조덕현목사가 주강사가 되고 同志社신학부에서 연구중인 반변섭목사와 배기환목사가 예배시간을 담당했다 강연내용은 「봉사의의미」 「성서에 있어서의 여성의위치」 「한국교회여신도회의 근황」 「여신도로서의 사명」 등이었다 실제 체험의말씀은 우리여친도회에 실천적인 활동력을 갖게하였다 하나님을 믿는것이 즉 이웃을 사랑하는것이라는 진리를 참석자전원이 뼈저리게 느꼈다. 日和山海岸、竹野浜海水욕장

天ノ橋立의 유람은錦上에添花하는 뜻있는 수양회였다

● 教職者研修會

교역자 연수회는 예정대로 7월 18일부터20일까지 岡山縣真庭郡湯原町々營宿舍桃李莊에서 뭉였다.

제 1일에는 大阪교회 최정수목사가 총회 신앙고백의 성립과정과 그내용에 관한 고찰을발표하고 제 2일에는 川崎교회 이인하목사의 1967년 미국합동교회신앙고백의 성립과정과 그내용의특징등을 연구하고 발표했다. 제 2일오후 湯原湖를 배로 유람한후 총회의 선교60주년기념대회에관한 토의를했

다. 우리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관한 강연을 부탁했었던 배동호선생의 불참가로서 小倉교회 최창화목사의 법적지위의 강연을 들었다. 약20명이 참가하였다. 대자연속에서 露傍온천에 몸을 적시고 우리의 신앙을 재고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 맥킨토 宣教師歸任

맥킨토선교사는 그가죽과 함께 일년간의 안식년휴가를 마치고 지난 7월 25일 귀일했다 금후 關西지방에 거주하면서 전교사업에 힘쓰게 되었다 여러교우들의 협력기도를 바라는바이다

● 六十周年

記念歌募集

☆六十周年 記念歌募集
一九六八年은 在日僑胞에게

福音宣敎가 시작된지 六十年이된다 在日大韓基督教總會에서는 六十주년記念行事와伝道倍加運動을展開中이며 다음같이 記念歌作詩를募集하고있다

記

一, 用語 國語

一, 內容은 左의標語와目標를參考하시기바람

◎ 標語「그리스도를 따라세상으로」

◎ 目標

(一) 教會에革新을

(二) 同胞社會에 變革을

(三) 世界에 所望을

一, 期限 一九六七年 九月末까지

一, 採用者에게는 金, 一萬円也를 謝禮함

一, 連絡처

東京都新宿区若宮町二四

在日大韓基督教總會 東京事務室 tel 269~2909

京都市右京区西降矢掛町20

在日大韓基督教總會 京都事務室 tel 84~9051

81~6381.

◎ 韓在秀 牧師歸任人事 ◎

하나님 은총중 총회 회장목사님을 비롯하여 제전배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하심과 평강하심을 위도합니다 교생이 동은중 지난일년동안 「카나다」에 가서 유학연구를 마치고 지난 6월 17일 에 무사히돌아오게 되었음은 전혀 여러선배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도와주심과 기도하여주신 은혜인줄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카나다」장로교회 해외선교부와 성도들의 모든

은혜와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연구한것을 살리어서 힘써 봉사하고자하오니 변치않는 사랑의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967년 7월 1일

大阪市東區東雲町2~200

K.C.C. 한재수 배상

(본문은 「카나다」에서 일년간 신학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한재수목사께서 본지전집부에 보내온 서신을 내용그대로 옮긴것임.)



자유해방!! 이말이 8.15해방후 매우유행된 용어였다 그것이 의미깊고 좋은 말이지만 많은오해로서 도리혀나쁜길에까지 미치게되었다 자유해방은 독재에서 정치적으로 자유가되어 자기의활동 자기할말을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간상

은 이기적행위로서 타인의 자유 타인의이익을 저해하는일이 너무나 많다 자유해방을 오인하여 방종과허랑방탕으로서 사회의 혼란 윤리도덕을 문란케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한다는말이다 자유해방은 책임성있는 복지사회국가를 건설한다는배그의미가 있는것이다 자유해방은 자리자육이 아니라 상호의이익 자유 친목을 도모하고 내일의평화를 위하여 즐겁게 그리고 힘차게 새사회를 건설해나가는배이다

光復節과 在日僑胞

金 在 述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은사의분량대로 지혜롭게 감사하십시오. 우리민족이 심한시련을 당했을때 부르던노래가 있다. 주 인생아 자유있느냐 있으면 살것이며 인생아 권리있느냐 없으면 죽으라. 이러한 의기를 생각할때 광복절은 진실로 경축의감격이 솟아오르듯 뛰어오르게 된다. 그간 우리민족은 정치외경제 또는 문화 종교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압박을 받아 참다못하여 별별한 방법으로 또는 정용등 강제로 이땅에와서 집중적으로 생활한지 반세기간 계속하여왔다. 그럼으로 설사이없이 설움과 한숨의 고통은 떠나지 않고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나님은 자비 하시사 우리에게 회(喜)를 주시어 국가와향토와민족의 자주독립을 회복시켜주셨다. 그일이 곧 민

족의상징인 태극기를 감격하여 쳐다보던것이 이십이 년전의일이 되었다. 당시 재류동포수는 240 만명이었으나 현재는 60만명으로 감소하고있다. 이중에 1 세는 약20만명인비 처지에따라 광복된조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꿈에라도 고향산천과민족의존을 그리워하고있다. 한두번 방문한이들은 더욱 애착심을 품게되고 이곳에서 태어난 2세청소년들도 민족차별이 심한 일본인사회속에서 권위있는 조국강토와 민족애를 접해보고는 비록언어는 통하지않으나 혈통이 흐름인지 『お父さん、僕はやつぱり将来は、祖国に帰つて暮しますよ』라고 표현한다. 이결심을 들는 부모들은 기쁨을 참지못한다. 재일교포들의三・一독립운동 집회나 八・一五광복절 기념집회만큼은 과연 민족정기의 제전 의모습임을 알수있다. 반갑다

광복절이여! 생기가 일어난다. 광복경축일 이여! 재일기독교도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유물적사상에 비하여 인류평화와 그행복을위하여 반공의 제1선부대이고 민족과 국가흥망의 중심적 책임이 일부가됨을 자각하여야한다. 국가와 민족을 영도하는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취임된다. 이시대에 박정희대통령과 정부는 적절한 정책을세워 전진하는기조를 교통중에도 마련하여왔음을 알고 국민들은 협조해야한다. 재일교포도 한몸의 지체처럼 맡은직분대로 조국을사랑하되 거짓없이 선에속하여 서로우애하고 존중하여노력하기로 먼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망중에 즐거워 하며 환란중에서 하루빨리 남북통일을이루어 세계어느나라 민족에게도 모범이되고 하나님의축복을받는 영예가속히오도록 기원함에 노력할것이다. (京都教会長老)

치심을 받았다(인장으로) (엡4:30 고후1:22 요6:27). 이날말은 부정과거행으로 인을 한번받음으로 영원히 받은것을 표시한다. (14) 이는 우리의기업에 보증이되사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신것 뿐만아니고 우리기업의 보증이시다. 보증이란 법의 상업적술어로 제1회 분납금 공탁금 보증금등의 뜻을 가지고있다. 상업적용어로 물건에 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거나 계약을 유효하게할려고 먼저 지불하는 물건값의 일부분을 의미한다(고후1:22). 우리가 성령을받음으로 장차 받을기업의 1부를 벌써 받고있으며 이것이 미래에 온전히 받을것의 보증이되는것이다. 그이런것을 구속하시라 이구속을위하여는 충분한값을 지불하였지만 구속의 결과는 아직도 우리몸의구원과 또한 하나님의자녀로서 우리가누릴 영원하고 찬란한생명을 기다리고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나타내신바 자비와은혜와 사랑에대하여 감격하고 받아드리게 할려는것이니 이는 그의영광을 찬미하게하러 하심이라. (iv) 바울의기도. 1:15~23 (1) 바울의감사 1:15~16 바울은 내가 너희를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아니한다 고 말하고있다. 감사하기를 시작함은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드물지만 감사를계속함은 더욱드물다.

그러나 감사를 중단치아니함은 좀체로 없는일이다. 바울은 감사로 시작했으며 감사를 계속했으며 감사를 마지아니하였다. 바울은무슨연고로 여기에감사를 하지아니하였느냐. 바울은 두가지일에 감사하였다. ① 주예수안에 믿음의뿌리가박힘을 인하여. ②주안에있는 신도에게 향한 사랑을 인하여이다. 여기 그리스도의 신앙의대요소가 잘나타나있다. 신도에게는 두가지대상이있고 두가지의 방법이있다. 즉 주예수그리스도와 성도가대상이다. 두가지방법이란 믿음과사랑이다. 신도에게있어서 주예수는 신앙의대상이고 이웃은 어디까지나사랑의대상이다. 또 이두가지요소는 서로보충한다. 그리스도에게대한 믿음은 이웃에대한 사랑에서 입증되어야한다. 또 이웃에대한사랑은 그리스도께대한 신앙에 근거하여야한다. 이두가지요소가 바로 십자가의도를 말한다. 십자가에는 반드시 縱과橫이있다. 오늘날의우리교회의 많은신도는 縱적인면은 겨우유지한 다할지라도 橫적인면의 인간관계에있어서는 많은실과를 하진않을까. ③ 감사와기도는 기도하는자의 두개의 수레바퀴와같다. 감사가 없는기도는 무의미한락추주의이다. 어떤 절박한 환경에서라도 감사가 있어야하며 어떤 평온한중에서도 기도가 있어야한다.

信徒를為한 <에베소> 書研究

(5)

尹 宗 銀

西宮教会牧師

(III) 유대인과이방인 1:11~14

바울은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바 새로운일치(一致)에관하여 민족적 실예를 들어 말하고있다.

(11) 모든일을 그마음의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안에서 기업이되였으니. "우리가 기업이되였다" (Eklerothemen) 번역하면 우리가 제비 뽑혔다 라는 말이다. 이말은 본래 제비(kleros)에서 온말이다. 처음에는 이스라엘백성들이 가나안을 제비뽑아 기업으로받은 소유를 말하고있으나 여기에는 우리 신도가 받은 특권을 가르키고있다. 신도가 소유특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을찾아갈 특권이다. 둘째는 봉사하는 특권이다. 그뿐만아니라 신도는 하나님의소유이다(창19:5). "우리가 함은 본서저자 자신이 속하고있는 유대인들을말하고 "너희도" 함은 이편지의

수신자인 이방인을 말한것이다. 그리고 14절에 "우리" 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말이다. (12) 바울은 그리스도의신도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안에서 전부터 바라던우리라고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소망이었다. 여기에 전부터 바라던(proelpizo)의 낱말은 신약성경에 있어서 이곳에 1 회만 나타난 특이한말이다. 그뜻은 전에 희망한다 혹은 먼저 바란다고한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백성이 메시아를 대망한것같이 현재의 신도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백성은 어느시대에 살든지 이희망 혹은 대망에살고있다. 희망과대망이 사라질때 절망이온다. 대망에사는 신도는 그대로 그의 영광의관송이 될것이다. (13) 1:13~14는 성령의증

보에대한 찬송이다. "그안에서 너희도" 이편지의 독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말씀을 들었다. (고후6:7 뎡후2:15 약1:18) 신영어성경(NEB) 역에는 진리의말씀이로 되어있다. 진리의말씀은 곧 구원의복음이다. 기독교의구원은 복음을 듣는데서 시작한다(롬10:14 갈3:2). 복음은 신약성경에 여러가지의 형용사를 붙여서 사용되고있다. 천국의복음(마9:35) 하나님의복음(롬1:1) 하나님의복음(엡6:15) 하나님의은혜의복음(행20:24) 하나님의영광의복음(고후4:4) 등. 바울은 복음중의복음은 예수그리스도 그자신 이라고 가르킨다(롬1:2).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이미 약속의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소유, 곧 그의 백성이된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심은것이 이방인신도들도 유대인신도들과같이 동일한 하나님의지인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교회구성체에 있어서 없어서는안될 중요한 회원이란것을 재확인한다. 너희가인

按手에關한一般的論議

崔 正 洙

(大阪教会牧師)

1 구약시대의 안수의용에 안수는 제사직을임명할때 국왕이나 중요한직을 임명할시 특수한예외의사를 열거하는줄노리고 거행한것이다. 1, 여호와앞에 봉사하게하기위하여 데위인들을회중앞에나오게하고 온이스라엘자손이 그들위에안수하여세웠다 『민 8:10(5~11)』 2,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대신 지도자로 세울때에 모세가여호수아를 제사장엘느아살과 온회중앞에세우고

안수하여 임명위탁 하였다 『민 27:18,23』 『신 34:9』 3, 속죄와 결례를 행할때 성직이나 속죄를 받을자가 자기의 죄를이전하는의미로 회생물에게안수하는에 『레1:4, 4:3~24』 이스라엘자손을 정결케하기위하여 산염소의 머리에안수함 『렘16:21』 4, 창48:14~19 하나님의축복을 양치하는아들이 요셉의두아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일우수가더욱우선하고 좌수는 차경한복이 된예기 있다

(계속)

× × ×

神の宣教と宣教する神の民

DR. HANS. マルグル

第二回在日大韓基督教總會、主題講演 (1966.1 12)

さて、私は希望について何度かのべて来ました。しかし彼女は希望そのものを抱いておりました。私はつねに夢をみています。すなわちクリスチャンである私達が毎日の生活の中で、希望をまき散らすという夢です。そしてこれが、主の夢である事を望んでいます。あるいは少しでも奉仕をするという夢をみます。神は相争う二つの民族の間に平和を作り出しました、それは日常のいさかいや、ささいな出来ごとかも知れません。戦争における二つの陣営であるかも知れません。以上の様に研究していくうちに、一般は次のことが賢明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第一に教会における責任あるグループは、共に相談しあって『この世においてニード(要求)はどこにあるだろうか』を検討すること。第二にこのグループが祈るときニードのある場所にどの人がつかわされるべきか持示を求めることであります。これらのことは日常生活と宣教についての間に答えるのに充分だと思えます。皆様方のうちで神学的に考える方にこれだけをつけ加えて下さい。私達は聖職と信徒の間の距離を克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こには、実際的な理由はありませんがその種の聖書的区別はありません。私達はすべての人を神の民と考えねばなりません。※教会における私達すべては神の一員です。勿論神によってそれぞれ異った賜物を考えられています。あるものは知的で他のもの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あるもの文才があり他のもの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あるものは説教する賜があり他のものはそうありません。あるものは治療する賜があり他のものはそうありません。

あるものはこの教会で預言者的な存在であり、他のものはすぐれた会計でありましょう。このように他の人々の間に入る時、多くのヴァリエーション(変化)を作り出すのであります。私達総べてのものは洗礼を受けたのですからこの民に属しています。洗礼はただ救いのしるしだけでなく、聖書によると、ある特定の仕事勤めに対する任命式なのです。すなわち、洗礼をうけたものの総てが宣教の任務にいたるのです。このことは教会生活についての私達の考えを支配するものでなくてはなりません。言いかえますと、私達すべては聖務を荷っております。そしてその中である人は、この世の仕事を持たず、聖務のみを果して行くよう区別されているのです。これらの人々を牧師とか説教者と呼んでいるのにすぎないのです。第三に個教会の世界宣教へ参加について考えます。皆様は韓国人のため韓国教会に属していられます。私はドイツの為ドイツ教会に属しております。これはこれでよいことです。皆様は韓国語を話す人に集中して宣教せねばならない様に私達はドイツ語を話す人々のお世話をします。しかしここにもしある人がこのつとめをあまりにも重大に考えるならそこにあるキケンが生じます。そのキケンとは、私達があまりにもドイツ人のことだけに思いよせ、皆様は韓国人に関してのみ考え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この状態がしばらくでも続いたら、結果は恐いものになります。私たちの教会の先生たちは教会が民族の教会、つまりドイツ人だけのものになってしまった事に気付きました。これはあり得べからざる事です。神は民族の教会が最高の

ものになれとお命じになりました。神は教会が宣教の教会となる事を望んでおられます。そしてこのことは教会が全世界に目を向けることを意味します。もし 教会が全世界への宣教に参加しないならば、教会は民族教会になります。私たちはドイツ人に伝道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あなた方は韓国人に伝道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私達は世界にもむ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さて、神の民の間には外国へ宣教師として、出て行く人がいつも少くとも二・三人はいるに違いありません。皆様の教会はまだ非常に小さい教会ですが二・三の方がアジア、アフリカ、ヨーロッパ、アメリカで宣教師になる事は可能です。これらの人全部が牧師になる必要はありません。全世界において若い女性が働く仕事は数多くあります。世界宣教の中での、多くの役割が看護婦たちによってなされています。第四番目、すなわち私が最後に言わんとしていることは一致についてであります。一つの教会が宣教にたずさわる時他の教会との協力なしでやるということとはもはや出来なくなっており、皆様方のうちの若いご婦人何人かが看護婦によってドイツに派遣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り、私達が彼女らを待っていることにします。そうすると彼女たちは韓国と日本において働いたもう神の行為の素晴らしい証人となるのですけれども皆様はドイツの教会の協力的な彼女ら送る事が出来ません。これは全く実際上の理由からです。もつと重要な理由もあります。それは私たちの不一致は福音を破壊するということです。ただ一人の主がおられ一つの福音があり、一つの

洗礼があるのみです。しかし多くの違った教会があります。これらの多くの教会から一つの教会を形成する事が出来るなら異った場所に多くの教会あるという事は良い事です。一つの巨大な教会ではなく沢山の個教会がお互いの教会を教会として認めて行くのです。東京の私の家にある大学生たちがやって来る時、いつもカトリックとプロテスタン内における相違について討議し合ったものです。ある日、明治学院大学の学生は私たちの大学は長老派の背景をもっている。これは、どういうこらを意味しているのだろうか？と言いました。彼らはクリスチャン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私はこの機会をこれらの学生にキリストについて語る機会として待っていたのです。しかし私がキリストについて語る以前に彼らはキリスト教会の不一致をつきつけたのです。私たちは今すぐに一致をつくり出す事はできません。何時も教会の一致は神からの賜物

であることを自覚せねばなりません。しかし疑問はその賜物を受け入れようとする手と広げているのか悪い拒否しようとしているかにあります。一致を受け入れましょう何時も受け入れましょう。宣教と一致に関して最後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皆様は W.C.C.における私の仕事に興味をお持ちかと存じます。そこで私がぶつかる問題は宣教における一致です。ハンブルグでの、ある夕方のこと、色々な国からやってくる水夫たちのたまり場で私は説教をしておりました。その時、教会に関する質問がありました。つまり、私はどの派の教会に(求めて来る)人々を紹介するつもりなのかということでした。私たちはつねに教会の一致に対する要求に会います。皆様方もより深く宣教にたずさわればたずさわる程一致への要求を経験なさる事でしょうお招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らの語り合いが皆様の討議の上に役立ちますことを望みます。

世に仕える教会

「世に仕える教会」という主題の意味を考えながら、聖書研究を助ける者として、私は聖長におけるたがいに矛盾する言ないしは考え方に思いをはせた。この相反するように見える事柄を明確にさせなかつた為に、多くのキリスト者は古くから一つの錯誤におちいつた。私は、まず、聖書のそれらの言を二三引用すること、その問題を指適して見よう。「世と世にあるものとを愛してはいけない。もし、世を愛するものがあれば、父の愛は彼のうちにない。」(第1ヨハネ 2:15)「世と交渉のあるものは、それに深入りしないようにすべきである。なぜなら、この世の有様は過ぎるからである。」(第1コリント 7:31) こうした言に忠実である限り、主題そのものが形容矛盾であり、そもそも、主題の設定が誤ったことになる。ところが、おなじヨハネが驚くべきことを宣言している。これは福音の真髄であるといわれる有名な言である。「神はそのひとり子を贈わった程に、この世を愛して下さった。それは御子を信じる者がひとりも滅びないで、永遠の命を得るためである。」(ヨハネ 3:16) 神がこの世をにく

んだとも、この世をさけたともいつていない。この世を悪し、そのために御子を遣わしたといっている。これは一体どういうことだろうか。在来、我々が信仰に忠実であろうとすれば、何か知ら、前者の線にそつて、この世から逃避しようとする。そこに、いわゆる一種の二元論が生まれ、信仰と現実生活の間に分裂がおこり、なやむのである。そして、教会社会にいきもどりつつ、たえず、本来つまずきを繰返している。今年主題のねらいは、この問題を積極的に突破しようとする。最近の言葉で、この問題を整理すると、世俗主義と世俗化が似て非なるものであることを基本的に考えなおすところから始めたい。教会がこの世に仕えるということは、決して教会がこの世にとり残されようとするところから来ていない。「教会論」を「キリスト論」にそつて、たて直そうとするところから来ている。その意味で、もう一度、聖書にそつたキリスト論を學び直してみたい。そのこてによつて、教会に連なる者の仕える姿勢が、おのずから明らかにされるだろう。

(川崎教会牧師)

関西地方信徒会修養会

主題 「世に仕える教会の真髄」
日時 八月十四日午後二時
十五日午後五時迄
場所 生駒山高厚堂講堂
購師 崔正奎 許千鶴 崔正奎
김정환 許千鶴 崔正奎
배기환 許千鶴

会長 김경후
書記 김경후
한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關西地方信徒会에서는 다음
일자에修養회를 개최하고자 하
니 敎友各位는 參加하시기를 願하
면서案内합니다.

※ 彼らの眼が開けた ※

ルカ 24:13~35

1) 最後の晩餐の時に主は、信徒を最後まで愛された。(ヨハネ13:1)とヨハネは記しているがこれは自分のもっている愛を全部さげつくしたというのである。(ヨハネ10:11) このような徹底した感を主は復活してからももたれてエマオの送迎でも、二人の弟子に会い、彼らと共に聖書を通して、キリストの復活を説かれたのである。しかし、それでや彼らには復活の主と共にながら、その主を見る霊眼がなかった。彼らの要請に応じてお宿りになられて、翌朝食事を共にしてパンをさく時にはじめて彼らは、主を認めることが出来た(マルコ16:12)。主はこのようにして、最後の最後まで私たちを愛して信仰生活をするように、おつとめになられるのである(マルコ16:7, ヨハネ20:27)。

2) 信仰も神の恩寵によって与えられのであるから、私達努力は救を得る条件にはならないがしかし、又私達は怠け者になってはならない。エマオ途上の二人も、彼らと共に語り、聖書を教えて上さる方がイエスとはしなかったけれども、自分たちは彼からもっと詳しく学ぼうと思っていて彼を引きとめて一夜宿ってもらったのである。しいて宿つもらうという彼らの熱意と努力は必要であった(マタイ11:12)。又主イエスが生まれながらの盲人にドロをぬってシロアムの池に行き洗えといわれた。盲人が池まで行くのは努力せねばならないことであるが(ヨハネ9:1~12)これは功績ではなく、自分のことを自分がする努力である

(ルカ17:7~10) 私達も信仰のゆえに自分当然せねばならない努力はすべきである(マタイ6:33)。

③ 私達の霊眼が開かれるには、聖書の感動が必要である。エマオでの二人の弟子も、聖書を主が説いておられた時に彼の心に燃えるのを感じたといっている。詩人ダビデも主の霊が、彼の心を燃した時に主の御言を語ったといっている(詩39:3)。予言者エリシャも、衆人が衆を奏する時に靈感を受けてユダヤ三国がモ

アブに勝利を得る予言をしたのである(列王紀下3:16~18)。聖書記者も靈感を受けた時に、神の言を記することができた(第二テモテ3:16)。私達も信仰的には未熟なものであつてエマオの弟子達のように愚かで心のぶいものであるが熱心に主を引きとめて主言葉を聞き心に燃やされたものである。主は私達と共に祈られるから、私達も聖書に親しみ祈りにはげば霊眼がかけられる(マタイ18:20, 28:20)。

在日韓国キリスト教会の問題点に問う (其の四)

神戸教会 牧師 金瓊燦

今回は 在日大韓基督教教会の問題点の中での、特に基督教々育問題に関して述べて見たい。いまさら宗教々育の必要性を再論することはないが、今日在日大韓基督教教会が直面している問題の中でこの基督教々育問題を再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つたと思う。主日(日曜)学校教育に関してその使命と目的等を考えて見る時、我々は根本的に宗教々育に関しての、新しいプランを計画して主日学校生徒達のみならず、教会の信徒全体の再教育を真面目に考えなければ在日大韓基督教教会の福音宣教の目的を十分に達成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私は言いたいのである。最近主日学校の名称を教会学校に改称すべきだと唱えるようになったのも

現代教会が福音宣教とその使命目的を、なお一層発展させる為であり 新しい時代に最も適合した教育方針を建てる為であると思う。教会がその使命を十分に発揮する為には この教育問題を根本的に再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又新しい教育プランが建て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今日までの在日大韓基督教教会がこの問題に関して如何なる関心とプランを 待ってきたかと言うならば、10年前のプランも今日のプランも大差なく、ただ日曜日に教会にやってくる生徒達を対象としてのみに聖書を教えて来たと言える。我は個人的な意見を卒直に述べるなら、在日大韓基督教教会の基督教々育に関して、

その組織と計画を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言いたい。勿論教育に関して、理論的には何等の問題は無いと言えるが、その方針と技術面に於いては、現代の基督教理念と方針にマッチしているとは、言えないのである。

そうだからと言って、現在の在日大韓基督教教会の教育局の教育方針が教育理念からはずれているとか、又、不充分だとは思わないが教育局自体の組織と方針にはいささか問題があり、現状のままでは基督教々育の目的を十分に発揮できないと思う。教育というものは宗教々育にしろ、一般学校教育にしろ、又、社会、家庭教育にしろ、同じくいえることは、教育者(教育する者)と被教育者(教育を受ける者)との間に教育が実践され、教育の人格が被教育者の人格に接触して、即一つの個性が他の個性と交りを行なひ、対話をなして行く内に始めて教育の内容が伝達され、やがては被教育者が以前持っていなかった何かを得るようになり、更にその被教育者の個性が段々と完成されて行くのである。決して、学問を切売りすることが真の教育だとは言えないのである。児童を教会学校へ行かせたから基督教々育が出来たとか、児童達をミッション

・スクールへ入学させたからクリスチャンになるだろう、という考えは賢明な考え方ではない。教育には必然に学習問題と学習指導が中心問題である。教育というものは、牧師が棚上で理論的に研究したものを生徒達に、一方的に教込むことのみではない。学習指導の素材が児童達の日常生活環境の中で、どれほど実践化されているかが問題なのである。学習指導には、自らと多様性と統一性が問題となるのである。民主主義下の教育方針の一つに討議法が必要とされるが、どの授業にもこの方法を採用することはあまり効果的でないのである。我々は無批判的模倣追従を慎重に観察し、研究して行かねばなるまい。主日学校と改称しようという主張も名称だけ、教会学校になれば、すべてが解決されると思つてはいけなない。

在日大韓基督教教会全体が将来のビジョンを打ち出して行かねばならないと同時に基督教々育に対しても、過去より以上の関心を持ち、急速に在日60萬同胞の為に新しい教育プランを建てるべきではないか。そして学習指導の基本的理念を再考慮して基督教々育の本使命と目的に向つてまい進すべきである。

高等部夏期学校 無事に終る

「世に仕える教会」及び「聖書と私たち」の主題によって20余名の講師の指導のもとで200余名の青年が伊勢二見ヶ浦に集つて、三晩四日のプログラムを無事に終えた。青年部修養会では話し合い交わりと言うものを中心に置いて修養会を計画し、バズ式話し合いと言う形式を始めてなしたが参加者の理解と協力で大いなる成果を得て、中央委員の修養会でなく、参加者一人一人の修養会となつた。(主題講

演の要約などは次号より) 又高等部夏期学校では修養会形式を夏期学校方式で集る様になつて、すでに五回目内容等が聖經学校的になつて學ぶと言う意味に於いては着実な成果を見せている。又第一日目の「祖国の夕」で祖国を再認識させられ、第二日目のゲストタイムには広島河村先生によつて、信仰の人として生きて来た八〇年の証しをしていただいたが一同心より神の働きと、その恵みを感謝した。

良書紹介

池東植牧師外十一人執筆 나는 어떻게 대답한다 〈七版〉		46版 208面 값 70원
포스닥 著 金夏泰 博士譯 젊은 知性人에게 〈再版〉		46版 256面 값 150원
金正 俊 博士 譯 어거스틴 懺悔錄 〈七版〉		46版 280面 값 150원
토마스 아 쾰피스 著 본그리 아스 도를 〈五版〉		46版 288面 값 130원
金 春 培 牧師 著 殉教史 話 集 〈五版〉		46版 312面 값 150원
金 鍾 商 先生 著 이것이 나 저것이 나? 〈五版〉		46版 252面 값 150원
一九六五年度 韓國의 講壇 柳 東 植 牧師 著		46版 262面 값 150원
韓國宗敎의 基督教 尹 聖 範 博士 著		46版 278面 값 250원
基督教의 韓國思想 韓國思想		46版 276面 값 250원
哲學과 宗教의 對話 終 弼 近 牧師 著		46版 430面 값 300원

法財團 大韓基督教書會
對 替 서울 一三九番